
터키의 경제 현황 및 EU가입 협상 전망

목 차

1. 터키의 최근 경제 현황 /1

가. 경제 동향 /1

나. 무역 동향 /2

다. 투자 동향 /5

2. 터키-EU 관계 /8

가. 무역관계 /8

나. 투자관계 /9

3. 터키정부 EU가입 대비 준비 현황 /11

가. EU가입 대비 터키정부가 시행한 각종 정책 변화 11

나. EU가입 대비 터키정부가 시행할 과제/정책 /12

다. EU가입 협상시 걸림돌로 예상되는 사항 /13

라. EU가입에 대한 터키 입장 /15

4. 한-터키 관계 및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6

가. 한-터키 관계 /16

나. 시사점 /21

1. 터키의 최근 경제 현황

가. 경제동향

□ 경기 회복세 뚜렷

- 터키 경제는 2001년 금융위기 후 2002년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산업생산 호조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민간소비 및 투자 급증으로 2004년 경제 성장률은 9.9%에 이르며, 이는 과거 40년만에 최고치
 - 2005년 경제 성장은 전년대비 다소 둔화된 4.8%로 예상되나 저금리, 생산성 향상 및 터키의 수출지향적인 제조분야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05년 1/4분기, 2/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와 4.2%의 성장률을 기록, 2005년에는 평균 4.8%의 성장을 실현할 전망

[연도별 주요경제지표]

주요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십억불)	145.6	184.2	239.7	302.0	355.2
GDP 성장률 (%)	-7.5	7.9	5.8	8.9	4.8
인구 (백만명)	69.3	70.3	71.3	72.3	73.3
1인당 GNP (불)	2,123	2,598	3,383	4,172	
실업률 (%)	8.5	11.0	10.5	10.3	10.0
소비자물가 상승률 (%)	54.4	45.0	25.3	8.6	8.2
상품수출 (백만불)	34,373	40,124	51,206	67,000	72,493
상품수입 (백만불)	38,106	47,407	65,216	90,925	101,220
대미환율 (YTL, 매도율)	1.23	1.51	1.50	1.43	1.36

(자료: 터키통계청, EIU 등)

*) 2005년도 수치는 전망치

□ 물가상승률 급락

- 터키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었으며, 90년대의 경우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78.7%에 달할 정도로 터키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대두
- 그러나 2002년 이래로 現정부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인하 노력에 따라 2004년 8.6%라는 한자리수 달성에 성공
- 2005년도에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리라(lira) 강세에 힘입어 8.2%의 물가상승률 예상

□ 환율 안정

-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급등했던 환율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화폐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수요에 힘입어 지난 3년간 리라화가 무려 30%나 평가절상되었으며 2005년도 말까지 달러화 및 유로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

나. 무역동향

□ 수출증가세 지속

- 터키정부의 수출중심 산업정책에 기인하여 최근 몇 년간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
 - 2004년 수출은 전년대비 33.6% 증가하여 63.1억불 기록
 - 2005년 1-9월 수출은 17.7% 증가하여 52.9억불 기록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천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1-9월)
수출 (백만불) (증감율)	31,334 (12.8)	36,059 (15.1)	47,253 (31.0)	63,121 (33.6)	52,937 (17.7)
수입 (백만불) (증감율)	41,399 (-24.0)	51,554 (24.5)	69,340 (34.0)	97,540 (40.6)	85,078 (20.8)
교역량 (백만불) (증감율)	72,733 (-11.6)	87,613 (24.5)	116,593 (34.0)	160,661 (37.8)	138,015 (26.5)
무역수지 (백만불) (증감율)	-10,065 (-62.4)	-15,495 (53.9)	-22,087 (34.0)	-34,419 (55.8)	-32,141 (26.4)

(자료: 터키통계청)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이며, EU시장으로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54.6%에 이를 정도로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음
- 특히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도요타와 포드사의 투자에 힘입어 급증, 올해 3/4분기까지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여 70.9억불을 기록
- 의류의 경우 EU의류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터키의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불, %)

순위	상품분류	상품명	2004			2005(1-9)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	63,121	33.6	100	52,938	17.7	100
1	87류	자동차	8,289	57.2	13.1	7,087	20.8	13.4
2	61류	의류 (편물)	6,259	9.2	9.9	4,931	5.8	9.3
3	84류	기계류	4,126	37.9	6.5	3,758	26.4	7.1
4	62류	의류 (편물제외)	4,537	19.0	7.2	3,659	9.6	6.9
5	85류	전기/전자제품	4,790	37.9	7.6	3,642	13.7	6.8
6	72류	철강	5,313	79.0	8.4	3,624	-4.4	3.8

7	73류	철강제품	2,227	60.1	3.5	2,036	30.8	3.5
8	27류	광물 (석탄 등)	1,429	45.8	2.3	1,875	80.5	3.0
9	08류	과일	1,903	36.7	3.0	1,599	38.2	2.7
10	63류	섬유제품	1,856	13.8	2.9	1,444	8.0	2.4

(자료: 터키통계청)

□ 원부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수입 증가

- 기초산업이 약한 터키는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수요 과다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음
 - 석유, 원부자재, 부품 등이 총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의 수입은 지난 3월부터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왔음
- 2004년 기록한 40.6%의 수입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에 속함
 - 올해 들어 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월간 20.8% 증가하여 85억불을 기록
-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의류, 전기전자 제품, 원유, 플라스틱 제품 등임

[터키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불, %)

순위	상품분류	상품명	2004			2005(1-9)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	97,549	40.7	100	85,078	20.8	100
1	27류	광물성 연료	14,407	24.5	14.8	14,762	48.1	17.3
2	84류	기계류	13,457	30.7	13.8	11,821	23.6	13.9

3	87류	자동차	10,237	90.2	10.5	7,262	-3.2	8.5
4	72류	의류(편물 제외)	8,032	69.2	8.2	7,113	28.4	8.4
5	85류	전기/전자제품	8,372	51.7	8.6	6,800	13.6	8.0
6		원유	-	-	-	6,312	42.9	7.4
7	39류	플라스틱과그제품	4,763	47.2	4.9	4,344	27.4	5.1
8	71류	보석/귀금속	3,763	36.0	3.9	3,569	23.2	4.2
9	29류	유기화학품	3,017	29.3	3.1	2,694	23.0	3.2
10	30류	의료용품	2,710	34.2	2.8	2,133	5.5	2.5

(자료: 터키통계청)

다. 투자동향

□ 국내투자 회복

- 2001년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투자가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
- 공공분야의 투자증가는 감소하는 반면, 민간분야에서의 투자는 증가추세
- 특히 민간의 기계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증대에 따른 산업생산증가에 원인이 있음

[연도별/부문별 투자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부문		2001	2002	2003	2004
민간	기계장비	-49.6	4.4	46.1	60.3
	건설	-8.7	-14.9	-11.4	15.3
	합계	-35.1	-5.3	20.3	45.5
공공	기계장비	-39.1	12.2	-19.2	14.8
	건설	-14.3	7.7	-9.0	-10.4
	합계	-22.0	8.8	-11.5	-4.7
총투자		-31.5	-1.1	10.0	32.4

(자료: 터키통계청)

□ EU가입 전망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급증

- 1997-2000년간 FDI 유입은 연간 10억불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1999년과 2000년에 FDI 유입은 터키의 outbound 투자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했음
 - 이러한 투자저하의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정, 부패, 물가상승, 중동유럽 국가들의 급부상, 인프라 부재,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인의 대 터키 투자는 2001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 유입
 - 2002년부터 터키경제의 안정성 제고, 수출 중심의 생산성 증가 등으로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이 염려했던 터키 경제의 불안정성이 개선되리라는 기대 하에 주목을 받기 시작
- 2003년 세계 57위에 머문 바 있는 터키의 외국인 투자 유치 순위가 2004년에는 27억불로 22단계 상승하여 세계 35위를 기록
 - 한편, UNCTAD 보고서가 평가한 2005-2009년 기간 중 가장 매력적인 R&D 지역 중 터키는 18위를 기록
- 2004년 12월 EU집행위가 터키와의 EU가입 협상을 2005년 10월 3일부터 개시하기로 발표함으로써 터키경제의 대외 인지도가 급상승
 - 2005년 1-8월 총 25.7억불의 외국인투자(부동산투자 제외)를 유치

[1995-2004년 터키의 분야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불)

	제조업	서비스	기타	총투자	순투자*
1995	388	534	12	934	885
1996	424	467	23	914	722
1997	349	456	47	852	805
1998	553	362	38	953	940
1999	353	447	13	813	783
2000	932	763	12	1,707	982
2001	846	2,439	3	3,288	3,266
2002	78	510	2	590	1,038
2003	338	196	12	546	1,694
2004	272	766	22	1,060	2,766
2005(1-8)	404	2,139	30	2,573	n/a
합계	4,533	6,940	184	11,657	13,881
비중(%)	38.9	59.5	1.6	100.0	

(자료: Turkish Treasury)

주: 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투자회수금액 + 부동산투자금액

- 최근 미국의 중동 정책연구기관인 Washington Institute는 터키가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 2005-2007년 200억불 이상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외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 분야로 전체에서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38.9%를 차지
 -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 매입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주요 투자대상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제조분야: 자동차, 식품 및 음료, 석유화학, 섬유, 비철금속
 - 서비스분야: 무역, 금융중개, 여행업, 우편 및 통신

2. 터키 - EU 관계

가. 무역관계

□ EU는 터키의 최대교역지역

- 2004년말 현재 EU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54.6%, 수입은 46.6%를 차지함으로써 EU가 터키의 최대 교역대상지역이 되고 있음
- 2005년 3/4분기까지 대 EU수출은 12.7%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 52.0%로 오히려 하락
 - 특히 대 EU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이 32.8% 증가하여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 → 3.3%로 확대
- 한편, 대 EU 수입은 동기간 중 8.1%의 증가율을 기록,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 → 42.2%로 다소 하락
- 과거 10년간 터키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전체적으로 12.8%였으나 EU에 대해서는 1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역시 각각 26.6%, 29.2%로 EU와의 교역규모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1996-2005년 터키 전체 수출입에서 EU의 비중]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
수출 비중	52.1	49.1	52.4	56.1	54.3	53.8	54.0	54.8	54.6	52.0
수입 비중	53.9	52.1	53.5	53.7	50.2	45.8	47.6	48.3	46.6	42.2

(자료: 터키통계청)

- EU국가 중에서도 독일이 수출입 공히 터키 최대의 교역대상국이며, 이태리,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순으로 교역이 많은 상태임

[터키의 주요 교역 대상국 (2005년 1-9월)]

(단위: 백만불, %)

국가명	수출금액	비중
전체	52,938	100
독일	6,846	12.9
영국	4,211	8.0
이태리	3,893	7.4
미국	3,668	6.9
프랑스	2,808	5.3
스페인	2,144	4.0
이라크	2,011	3.8
네덜란드	1,820	3.4
러시아	1,693	3.2
루마니아	1,274	2.4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전체	85,078	100
독일	9,917	11.7
러시아	9,079	10.7
이태리	5,526	6.5
중국	4,791	5.6
프랑스	4,342	5.1
미국	4,099	4.8
영국	3,457	4.1
스위스	3,380	4.0
한국	2,579	3.0
스페인	2,562	3.0

(자료: 터키 통계청)

나. 투자관계

□ EU국가 투자비중, 전체의 85.23% 차지

- 2004년 대터키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EU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85.2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EU국가의 터키진출이 활발한 이유는 1996년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무관세수출입이 가능하며, 지리적인 인접 용이성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인해 EU기업들이 터키를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 대 터키 투자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8)
EU	2,613	455	338	860	2,234
기타 OECD국가	280	60	196	207	68
기타 국가	395	75	12	42	271
합계	3,288	590	546	1,109	2,573

(자료: 터키중앙은행)

* 부동산 제외 신규투자, 백만불

* 對터키 10대 투자국 (2003년 하반기 ~ 2004년 하반기 기준, 전체에서의 비중)

- 독일(56.1%), 미국(5.9%), 네덜란드(5.2), 그리스(4.0%), 영국(3.0%), 스위스(3.0%), 러시아(2.0%), 벨기에(1.9%), 아이슬란드(1.9%), 사우디아라비아(1.6%)

□ EU가입 협상에 따른 투자 증가 예상

- 2005년 10월 3일 개시된 EU가입 협상을 계기로 EU기업들의 對터키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주요 부문의 구조조정, 경제 성장 및 EU가입 가능성에 따라 2004년 및 2005년 초반 이미 외국인 투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8월 EU국가들의 대 터키 외국인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84.9% 이상 급증하여 총 22.3억불을 기록

3. EU가입 대비 터키정부 준비사항

가. EU가입 대비 터키정부가 시행한 각종 정책 변화

□ 터키정부의 주요 정책

- 터키-EU 관세동맹 체결 (1996. 1. 1일부)
 - 터키-EU간 무관세 수출입 개시
- EU법에 부응하는 국가계획 수립 및 시행 (2001. 3월)
- 헌법 30개 조항 개정 (2001. 9월)
 - 터키 헌법을 EU 기준에 맞추어 개정
- 인권법 혁신 (2002. 8월)
- 사형법 폐지 (2004. 1월)
- EU 신회원 10개국에 관세동맹 확대 (2005. 7. 29)
 - EU 신회원국 10개국(그리스계 사이프러스 포함)에 대한 관세동맹 확대. 단, 동 조치가 그리스계 사이프러스(남 사이프러스) 행정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임

□ 터키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경제안정화 추진
 - 1999년 65%였던 인플레이션을 2004년 한자리수(9.32%)로 안정시킴

- 달러화 대비 터키 화폐는 1991년에 비해 2001년에 292배나 가치가 하락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 분야 규제완화

-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배제

○ 공기업 민영화

- 전기, 통신, 설탕, 담배, 철강, 항공 등 국가에서 운영하던 대표적인 공기업들을 이미 민영화하였거나 현재 민영화를 진행 중에 있음

○ 시장가격 왜곡 방지 등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 농업분야에서 가격보조 정책의 수정과 담배, 설탕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통제 형태에서 수요공급에 맡기는 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왜곡현상 방지

나. EU가입 대비 터키정부가 시행할 과제/정책

□ 협상방법

- 35개 항목에 대한 항목별 적격심사과정(Screening process)을 거친 후 항목별로 본 협상이 진행
 - 35개 항목에 대한 본 협상이 터키와 EU의 동의하에 완료되면 터키의 EU가입이 성사
- 다만 동 협상은 'EU가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조건지

어진 상태이며, 협상 기간(약 10년 이상 소요 예상) 동안 돌발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여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항목별 협상 전망

- 과학 및 연구, 교육 등의 분야는 EU가 구체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의 자유, 경쟁 및 교통 정책, 에너지, 가정문제, 고용 및 사회 정책 분야는 2005년 가입한 10개국의 예에서 보듯이 까다로운 항목들이 될 전망
 - 특히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터키 노동자들의 이주문제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두어 완전 자유화로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음
- 터키에게 가장 어려운 협상 항목은 농업과 환경 분야가 될 전망이며,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와의 관세동맹 문제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다. EU가입 협상시 걸림돌로 예상되는 사항

□ 사이프러스 문제

- 2005. 7. 29일 터키는 EU 신회원국 10개국에 관세동맹을 확대 적용함
- 터키는 10개국에 포함된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에 대해서는 공

항 및 항구 개방을 불허하고 있으나 EU는 터키가 EU 신회원국(그리스계 사이프러스 포함)에 대한 관세동맹에 합의했기 때문에 개방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문제는 사이프러스 문제의 정치적 특수 상황과 터키계 사이프러스(북 사이프러스)의 낙후된 경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터키 노동자 이동의 자유

- EU 국가들이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경제적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터키 저임 노동력이 EU국가로 이주하여 자국민들의 실업률을 높이고 사회문제화 하는 것임
- 터키의 EU 가입이 2014년 확정되더라도 터키 노동자의 자유이주 문제는 2020년까지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으며, 202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금지된 채 터키가 EU에 가입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까지 예상됨

□ 농업 및 환경 분야 협상

- EU 공통법에 있어서 농업과 환경 분야의 규정은 광범위하여 터키와 같은 규모가 큰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협상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터키 농업분야로서는 농업개혁을 위한 EU차원의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EU 입장에서는 터키 농업의 방대한 규모 때문에 쉽게 지원할 수

없는 입장임

- 즉,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EU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재원마련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큼

라. EU가입에 대한 터키 입장(업계/정부/시민)

□ 업계 입장

- 터키 경제의 안정화 지속, 대외 신임도 증가에 따른 지속 성장을 바라는 업계로서는 터키의 EU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

□ 정부 입장

- 1차 세계대전 후 터키공화국 수립이후 터키 정부는 지금까지 EU가입문제를 숙원과제로 삼아 왔으며, 현 정부 역시 EU가입을 최대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 시민 입장

- 2004년 터키국민 73%가 EU가입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선호도가 63%로 다소 하락
 - 이는 EU가 사이프러스 문제,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 쿠르드족 문제 등에 있어서 터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요구를 해왔다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민족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4. 한-터키 관계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한-터키 관계

□ 교역 현황

- 한국은 터키의 9위 수입국이자 76위 수출국이며, 터키는 우리나라의 23위 수출국이자 64위 수입국임
- 한국의 대터키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터키제품 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량의 22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이 터키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 1차상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무역불균형 문제의 시정은 어려워 보임

[한국의 연도별 대 터키 수출입 실적]

(단위: 천불, %)

	2001	2002	2003	2004	2005(1-9)
수출	697,085	865,920	1,374,736	2,356,221	2,046,335
(%)	(-42.2)	(24.2)	(58.8)	(71.4)	(21.0)
수입	130,332	125,342	78,126	104,044	93,309
(%)	(156.5)	(-3.8)	(-37.7)	(33.2)	(20.1)
무역수지	566,753	740,578	1,296,610	2,252,177	1,953,025
(%)	(-51.0)	(30.6)	(75.1)	(73.7)	(21.1)

(자료: KITA)

- 2001년 전후 터키의 금융위기로 터키경제가 심각한 내수부진을 겪었던 2001년에 한국의 대터키 수출이 -42.2%를 기록한 이후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2002년 24.2%, 2003년 58.8%, 2004

년에는 71.4%라는 급등세를 보였음

- 이는 2003년부터 터키의 수출호조로 산업생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한국의 대터키 수출품이 주로 원부자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게다가 터키 내수시장의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대터키 수출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 다만, 2005년 들어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현지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 전자산업의 성장률 둔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2004년 수출 급증에 따른 조정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0%의 증가를 기록

[우리나라의 대터키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4		2005(1-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356,221	71.4	2,046,335	21.0
1	자동차	643,700	154.8	508,102	4.4
2	영상기기	124,302	492.5	158,873	93.0
3	건설광산기계	89,844	129.8	147,088	89.4
4	자동차부품	128,331	67.1	106,921	24.4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02,261	92.9	96,990	221.3
6	합성수지	94,199	50.2	94,556	73.8
7	무선통신기기	156,031	68.3	85,486	-28.0
8	인조장섬유직물	119,286	9.7	79,244	-9.3
9	인조섬유장섬유사	96,475	13.3	68,572	4.7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3,296	1,587.6	51,392	196.6

(자료: KITA)

□ 대 터키 주요 수출입 품목

○ 대 터키 5대 수출품목은 자동차, 영상기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관련 부품이며, 이들 5대 수출상품의 2004년 평균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87.42%에 달함

- 그러나 2005년 들어 이들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한국이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의류, 기타비금속광물, 식물성물질, 면직물, 수산가공품 등임

[우리나라의 대 터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4		2005(1-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4,044	33.2	93,309	20.1
1	의류	6,429	54.8	7,719	42.1
2	기타비금속광물	8,764	-3.6	7,563	7.1
3	식물성물질	3,637	162.6	7,169	140.3
4	면직물	3,992	330.9	5,896	134.3
5	수산가공품	4,592	21.4	5,026	47.7
6	기호식품	13,876	49.3	4,879	-47.7
7	자동차	3,470	153.4	4,854	130.8
8	정밀화학원료	3,321	45.7	4,568	90.5
9	자동차부품	2,738	-9.0	3,213	72.2
1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1	196.5	3,898	35,159.0

(자료: KITA)

□ 투자 동향

○ 양국간 투자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 터키 투자로 일관되고 있으며, 터키의 대 한국 투자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는 2005년 7월말 기준으로 순투자기준 총 22건, 미화 94,753천불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22건 중 14건으로 63.6%, 금액기준으로는 94,753천불 중 76,423천불로 80.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 치중

[대 터키 업종별 투자현황 (누계)]

(단위: 건, 미천불)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계
신고건수	1	2	19	4	2	28
신고금액	230	29,000	161,959	3,187	854	195,230
투자건수	1	2	18	4	2	27
투자금액	217	14,251	88,086	3,162	700	106,416
순투자건수	1	1	14	4	2	22
순투자금액	217	14,251	76,423	3,162	700	94,75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5. 9))

□ 터키진출 한국기업 현황

- 터키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7,000만명이라는 대규모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EU시장을 겨냥한 투자전략을 펴고 있음
- 특히 터키는 EU시장에 근접하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저임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EU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며, 실제로 터키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수출 규모는 50% 이상임
- 최근 한국과 터키의 교역규모가 증대하면서 자동차부품, 섬유 등을 중심으로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수준이 터키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터키 업체들의 문의도 증가추세

○ 한국기업 진출 현황: 총 19개사

- 이스탄불 지역: 삼성전자(주), 삼성전기(주), 삼성물산(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중합상사(주), LG전자(주), LG-BEKO, LG 필립스, LG 필립스 LCD, LG 화학, (주)대우인터내셔널, (주)효성, 주(카스), OCI 상사(주), 한일이화, 한국타이어
- 부르사 지역: 만도기계, CJ
- 아다나 지역: 경인양행

○ 한국기업 투자 내역: 총 7개사

번호	회사명	투자 연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천불)
1	(주)카스	1992	이스탄불, 전자저울 판매법인 설립	1,500
2	현대자동차	1997	이즈미트,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200,000
		2002	공장증설 증액투자	
3	아산한일	1997	이즈미트, 자동차내장제품생산 합작투자	6,000
4	경인양행	1997	아다나지역, 염료생산 합작투자	2,000
5	만도기계	1997	부르사지역, 자동차용쇼바 합작투자	14,000
6	LG전자	2000	이스탄불외곽 게브제공단, 에어컨생산 합작투자	50,000
7	CJ	2004	부르사지역, 사료공장 합작투자	4,000

나. 시사점

□ 터키 내수 시장 잠재력 인식 필요

- 터키의 EU가입 협상은 향후 약 10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EU가입 성사 여부를 떠나 터키 경제는 안정화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7,000만이 넘는 인구(2004년 5월 EU가입 10개 신회원국 전체인구와 맞먹는 수준)가 창출할 엄청난 규모의 내수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 신규 시장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확대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 주목 필요

- 터키는 유럽,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며,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음
- 따라서 터키를 통한 유럽 등 인근국 진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EU 공통법(EU Acquis Communautaire) 35개
협상분야

- 1) Free movement of goods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 2)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 (노동력 이동의 자유)
- 3) Right of establishment and freedom to provide services
(서비스 제공의 권리와 자유)
- 4) Free movement of capital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5) Public procurement (공공입찰)
- 6) Company law (회사법)
- 7)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
- 8) Competition policy (경쟁정책)
- 9) Financial services (금융 서비스)
- 10)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정보사회 및 미디어)
- 11)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 및 농촌 발전)
- 12) Food safety,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policy
(식품 안전, 가축 및 식물 정책)
- 13) Fisheries (어업)
- 14) Transport policy (교통 정책)
- 15) Energy (에너지)
- 16) Taxation (세제)
- 17)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경제 및 금융 정책)
- 18) Statistics (통계)
- 19) Social policy and employment (사회 정책 및 고용)
- 20) Enterprise and industrial policy (기업 및 산업 정책)
- 21) Trans-European networks (유럽횡단 네트워크)
- 22) Regional policy and coordination of structural instruments
(지역 정책 및 구조적 도구의 협력)
- 23) Judiciary and fundamental rights (사법 및 기본권)
- 24)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정의, 자유, 안전)
- 25) Science and research (과학 및 연구)

- 26) Education and culture (교육 및 문화)
- 27) Environment (환경)
- 28) consumer and health protection (소비자 및 건강보호)
- 29) Customs union (관세동맹)
- 30) External relations (대외 관계)
- 31) Foreig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외교, 안전, 국방 정책)
- 32) Financial control (재정 감독)
- 33) Financial and budgetary provisions (재정 및 예산 규정)
- 34) Institutions (관습)
- 35) Other issues (기타)

작 성 자

- ◆ 장수영 차장 (이스탄불 무역관)
- ◆ 김한나 책임연구원 (해외조사팀)

“터키의 경제 현황 및 EU가입 협상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